

## 산업별 대일무역수지와 시사점

대일무역적자가 작년보다 85억달러가 많은 361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원자재, 자본재, 직접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등 5개 상품분야중 직접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상품분야에서 대일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들 상품분야의 대일경쟁력이 취약하고 대일 산업내무역이 부진함을 반영함과 동시에 한일간 기술격차에 기인한 산업내 무역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 2010년 대일무역적자폭 크게 확대

- 2010년 대일 무역적자폭이 2009년보다 85억달러가 늘어난 361억달러

### □ 직접소비재 등 5개 상품분야가운데 직접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상품분야에서 대일무역적자 기록

- 유일하게 직접소비재 분야에서만 12억달러의 대일무역흑자를 기록
- 원자재(185억달러 적자), 자본재(188억달러 적자), 내구소비재(91억달러 적자), 비내구소비재(8억달러 적자)분야에서는 모두 대일무역적자를 기록

### □ 산업/업종별로는 일반기계(99억달러 적자)가 100억달러에 가까운 대일무역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어 철강(73억달러 적자), 화학(34억달러 적자), 광학/정밀기계(30억달러 적자), 전기기계(29억달러 적자), 수송기계(20억달러 적자) 등의 순으로 적자폭이 큼.

- 철강과 화학제품은 원자재중에서도 가공소재류에 해당하며, 내구 소비재의 경우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등과 같은 기계류를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재와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리고 원자재와 자본재는 생산재라는 점에서 공통적임.
- 결국 생산재와 소비재 중에서도 일부 기계류에 해당되는 제품 분야에서 대일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임.

## □ 산업별 무역수지의 크기는 당해 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내 무역의 정도를 반영

-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크면 그만큼 당해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한 반면, 무역적자폭이 크면 그만큼 당해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취약
- 대일 무역적자폭 확대 또는 대일 무역흑자폭 축소는 대일 수출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취약해지거나 또는 내수산업의 대일 수입대항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

산업별 대일무역수지(2010년)

단위 : 백만달러

성질별상품분야 (MTI분류)	대표품목 (HSK분류)	대일수출		대일수입		대일무역수지	
원자재	철강	13410	2860	31899	10152	-18489	-7292
	화학제품		1349		4724		-3376
자본재	일반기계	10397	2732	29154	12650	-18757	-9918
	전기기계		6315		9194		-2879
	수송기계		665		2679		-2014
	광학/정밀기계		1399		4398		-2999
내구소비재	가전	1993	-	2084	-	-91	-
	자동차		30		634		-604
비내구소비재	의류	684	339	692	58	-8	281
직접소비재		1677		466		1211	
총계		28176(21771)		64296(49428)		-36120(-27657)	

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주 : ( )는 2009년 실적

- 무역수지가 균형에 가까울수록 당해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반면, 무역수지흑자폭 또는 무역수지적자폭이 클수록 산업내무역이 부진
- 일반기계산업의 대규모 대일 무역적자폭은 그만큼 대일 산업내무역이 부진하고 대일경쟁력이 취약함을 반영
  - 일반기계산업내 HSK4단위로 세분된 품목별 대일 무역수지를 보면, 87개 품목중 11개 품목만이 대일 무역자품목이며 나머지는 일방적인 대일무역자품목이 대부분임.

#### □ 무역코드내에서의 상품분류와 산업/업종별 무역수지

- 무역코드내(HSK10단위 이상의 상위분류)에서 산업/업종은 용도, 성능/기능, 투입원재료, 부품/완제품 여부, 사용/작동방법 등의 요인에 따라 세분되며 산업내무역 내지는 무역특화도 이들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 무역코드밖에서의 상품/품목별 무역수지

- 무역코드밖(무역코드밖(HSK10단위 이상의 하위분류)에서는 상품/품목은 주로 품질요인에 세분되며 이 경우 품질요인은 수직적인 품질요인과 수평적 품질요인으로 구분
  - 수직적품질(vertical quality)요인은 소비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품질요인으로 명백한 비용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가격에 반영
  - 수평적품질(horizontal quality)요인은 소비자의 취미나 기호와 관련된 요인으로 반드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님.

## □ 시사점

- 한일의 산업발전과 함께 한일간무역도 산업간 분업보다는 산업내 무역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요소집약도와 요소부존도에 의해 결정되는 핵선-올린류의 무역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이 가능
- 한일간 산업내무역에는 한일간 기술격차와 같은 기술요인이 크게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술요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중요한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품질요인임.
  - 한일간 무역에서 기술력이 비교적 높지않고 비숙련 노동집약적이거나 자본집약적인 소위 표준화된 제품분야에서는 대일 무역흑자 업종/품목 또는 대일 수출특화업종/품목이 많은 반면(철강분야에서 범용강 반도체분야에서 메모리 제품, 일반기계의 경우 금형, 화학의 경우 비정밀화학제품, 기타 일부 장치산업적 성격이 강한 분야 등이 이에 해당), 고품질제품, 고도기술력제품 분야는 대일 무역적자업종/품목 또는 대일수입특화업종/품목이 많음.
  - 무역코드내에서 대일 무역적자업종은 대일 무역흑자업종에 비하여 기술력이 요구되고 이중 일부는 품질요인과의 관련이 있는 업종이 있음. 다만 이들 대일적자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대일수출에 특화하고 있는 품목이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대일흑자업종가운데도 일부 대일수입에 특화하고 있는 품목이 존재
- 이는 결국 무역코드내에서 또는 무역코드밖에서 한일간 기술격차 요인에 따라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저품질제품 또는 중/저가제품 분야에, 일본은 고품질제품 또는 고가제품 분야에 특화하는 구조에서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